



이화주 남원시장은 민선 6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동안 추진성과와 하반기 추진방향을 밝혔다.

“지역화합과 안정 기반 마련”

이화주 남원시장 민선 6기 2주년 추진성과·후반기 국정방향 밝혀

이화주 남원시장은 민선 6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동안 추진 성과와 하반기 추진방향을 밝혔다. 먼저 이 시장은 “민선 5기는 새로운 남원 더 행복한 남원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준비하였고 그 기반위에 민선 6기는 지역화합과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남원 발전의 힘찬 도약을 이뤘다”라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민선 6기 2년의 주요성과를 △남원관광 활성화 강화 원동력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발전도대 강화 △남원농업 경쟁력 올리기 △교육 복지 만족도 높이기 △남원인의 자긍심 세우기로 요약했다.

이 시장은 “시정 각 분야에서 우리의 꿈과 노력이 결실을 맺어가고 봉정만리(鳳鳴萬里)남원을 만들어 가고 있다. 지금이 미래남원 주춧돌을 놓는

절호의 기회다. 민선 6기 하반기는 시민여러분과 함께 지금보다 훨씬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힘차게 가속페달을 밟으며 남원발전만을 위해 흔들림없이 질주하겠다.”라고 강한의지를 밝혔다.

이 시장은 민선 6기 후반기를 크게 △문화관광 산업화를 통한 남원발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복지 적극 실현 △시민소통과 화합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내발적 발전을 리고 남원공공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먼저 문화관광도시 남원 옛명성을 되찾기 위해 차별화된 관광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통해 관광객유치를 끌어올리고 남원관광의 백년대가를 준비하는 지리산산악철도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한다.

다양한 복지수요에 맞춰 읍면동에 맞춤형복지 전달망을 시범설치하고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 지원한다. 시청사부지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고 도동동에 시립도서관 건축을 추진한다. 범죄예방과 시민안전을 위해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서 남원 안전 시스템을 만들어 나간다.

서남대학교 정상화를 시장의 최우선에 두고 적극 대응하며 소규모 지역공동체 활동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행정과 시민과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준비한다.

이화주 시장은 “취임 2년의 주요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주요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시민 모두가 더 행복한 남원공공체를 만들겠다. 민선 6기 하반기에도 변함없이 남원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고 기자간담회를 마무리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시, 전통시장 경영 활성화 사업 박차

장보기도우미·택배 지원서비스·시설현대화 등 추진

남원시는 시장별 특성을 살린 전통시장 육성 정책을 바탕으로 활력있는 지역경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장보기도우미, 택배 지원서비스, 문화이벤트,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등 다양한 사업도 추진해 경영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4억2,400만원 등 총 7억2,000만원을 들여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공설시장 노후배관 및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교체, 장곡 누수방지공사를 시행했다. 용남시장은 스피커 및 대형 TV전광판 등 방송시설을 설치하고 방송공사를 완료했으며, 인월시장은 비가림시설 설치 등 안전시설을 정비했다.

전국 팔도의 대표 시장을 찾아가는 팔도장터 관광열차도 남원을 찾았다. 총 4회에 걸쳐 수도권 관광객 1,600여명이 공설시장을 찾아와 어르신들이 직접 재배, 채취한 채소 산나물 등을 구입하며 5일장의 정취를 만끽했다.

인월시장은 지리산권 관광객 및 탐방객들을 위한 토요문화장터를 장남(3.8)과 곁치는 주말에 개최하여 불거리, 줄길거리 등을 제공하고 일일금액 이상 구매고객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등 지리산권의 대표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통시장 이용객 증가를 위해 판매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은 6월 기준으로 전년보다 79% 증가로 24억 1,600만원을 판매해 시민들의 발길을 전통시장으로 돌리는 데 큰 기여를 했다.

하반기에는 국비 2억6,000만원 등 총 5억2,000만원을 들여 용남시장의 명칭과 시장 특화상품인 수산물, 견과류 등 내륙의 바다 이미지가 용(龍)과 곁치고 교통산성, 춘향전의 이동통의 컨셉과 교차하여 용의 이미지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합문화 공간 구성으로 기존 고객쉼터와 연계하여 교육, 문화, 체험 활동이 가능한 정보와 소통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방문객과 상인을 연결해 시장의 거점공간을 형성하고, 하반기에도 시장축제, 상인기회단 및 동아리를 운영하여 여가활동을 통한 상인

과 지역민의 공동체 관계망을 형성하여 골목형 시장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여러 행사를 통한 네트워크를 구성할 계획이다.

공설시장은 9월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전면주차장 공영장에서 남원생활문화예술동호회의 상설공연과 야외음악 공연을 통해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힐링의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상인들은 점포대학을 개설하여 SNS 마케팅과 상품 진열방법, 고객 친절 대응 등 상인들의 의식 변화를 유도한다.

인월시장은 장남과 곁치는 주말과 여름철 피서객을 겨냥한 다양한 문화행사와 고령지에서 생산되는 과일 및 산채나물 등의 특산물 판매장터와 보고 즐기고 살거리가 있는 풍성한 시장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지난해에도 주차장, 아케이드, 고객센터, 소방, 전기, 가스시설 보수 및 시설 보강사업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이화주 남원시장은 “현대화 사업과 함께 시장별로 불거리, 줄길거리, 살거리 등 개리가 있는 시장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물놀이 안전전담팀 운영

임실군이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 안전전담 T/F 팀’을 구성하고 8월까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군은, 최근 발생한 인명사고 원인을

분석해 읍·면과 정보를 공유하고 관내 소방서, 경찰서, 자율방재단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비상상황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7월 1일 임실119안전센터 전문 강사를 초빙해 인명구조 요령, 장비

사용 방법,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인명피해 발생지역이나 위험이 높은 지역에 안전관리 요원을 고정 배치하고 구명환, 구명조끼, 위험포지, 안전장비 및 시설을 확충해 집중 관리한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소방서 민원사이트 열어

고창소방서(서장 김석용)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소방민원 사이트(소방민원센터 www.mpss.go.kr/somn/)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민원센터는 대국민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방행정보호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소방민원서류를 소방관에서 직접 방문하거나 서류를 종이 문서로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

해 구축했다.

새롭게 구축된 민원센터는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신청한 민원서류의 진행 상황과 처리결과도 언제든지 확인 가능하다.

소방민원센터를 통해 민원신청이 가능한 사항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소방안전관리비조사 선임신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연기신청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 점검 결과보고

등이 있다.

고창소방서 예방안전팀장은 소방민원과 관련하여 민원편의를 위해 온라인 소방민원센터뿐 아니라 고령자 등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은 민원인들을 위해 오프라인으로 현행 소방관서의 방문을 통한 민원처리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며, 자세한 사항은 고창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한국의 미래를 빛낼 CEO 대상 박우정 고창군수 수상 ‘영예’

박우정 고창군수가 ‘2016 한국의 미래를 빛낼 CEO 대상’ 친환경경영 공공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고창군은 이번 ‘2016 한국의 미래를 빛낼 CEO 대상’ 수상에 앞서 최근 ‘2016 대한민국 경영대상’ 친환경경영대상 공공부문 2년 연속 대상에 수상하며 전국 최고의 친환경정책 지자체임을 증명하고 있다.

‘2016 한국의 미래를 빛낼 CEO 대상’은 월간조선이 주최하고 조선일보,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고 있다.

이 상은 각 산업군에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성과를 창출해 사회, 경제, 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고 ‘한국의 경영 선진화’를 이끌고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선정해 시상했다.

국내 최초로 행정구역 전체가 유

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고 미래 핵심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생태환경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고창군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이상적인 삶의 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친환경정책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고 있다.

군은 고창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를 2017년까지 건립해 개발과 보존의 균형 속에서 체계적 관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 고창갯벌의 세계자연유산등록 추진, 해양생태벨트개발 등 각종 친환경정책을 통해 청정한 생태도시 고창의 이미지를 더욱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우정 군수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이념담고 청정한 생태도시 고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군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호우’

행복한 교실 만들기 등 운영

임실군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집단프로그램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201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라북도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38.2%로 전국 평균 37.0%에 비해 1.2% 높은 수준이며, 청소년의 1/3이 상이 학업성과에 대한 진학에 대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상을 보여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청소년기는 또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신체·정서·사회화적인 발달 과업들을 행복하게 진행해 나가야 하는 시기이나, 발달 특성 상 정서적 어려움과 혼란감이 상당부

분 나타나는 시기이다.

이에 따라 군 보건요원은 전북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와 협력하여 관내 청소년들의 정상적인 정신건강 발달과업을 위해 관중중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7회차에 걸쳐 집단프로그램인 ‘우리들의 행복한 교실’ 만들기, 정신건강교육, 건강체험부스 등 다양한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군 보건요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아동의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운영과 정서행동 특성검사 관심군 학생에 대한 미술심리 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률, 강천산 탐방로 두곳 112신고 표지판 설치

순창경찰서(서장 최규은) 팔덕파출소(소장 최 열)는 나홀로 여성 등산객의 안전확보를 위해 강천산 순환탐방로 입도에 112신고 위치표지판을 설치했다.

강천산에는 매포소를 통해 통제되는 정규 탐방로 이외에도 능선을 올라가는 순환형 입도가 6km가량 길게 숨겨져 있는데 이곳은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소수의 등산객들만이 이용하고 있어 매우 한적한 만큼 반대로 범죄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장소이다.

팔덕파출소는 이 곳 탐방로 중간 두 곳에 112신고 위치표지판을 설치, 유사시 112에 신고위치를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한편, 경찰에 의해 관리되는 장소임을 표시함으로써 등산객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높

이고자 하였다. 설명이다.

최규은 서장은 “여성상대 범죄가 끊이지 않는 요즘, 여성안전을 위한 특별 치안활동에 중점을 맞춰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을 하반기 주민자치위원회 개최

임실을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박재만)는 지난달 29일 임실을사무소 회의실에서 하반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016년도 상반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평가와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임실읍에 접목 가능한 사업구상 등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했다.

박재만 위원장은 “하반기에도 주민들이 편안하고 유익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희석 읍장은 “지역공동체 형성의 중심체인 주민자치위원회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임실을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임실을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기타 문의 사항은 임실을 주민생활지원팀(☎640-4012~4)으로 연락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 신평면, 복지사각지대 해소나서

임실군 신평면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지난달 29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회의는 순환진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협의체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계획에 따른 운영 규정 회의를 결정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자체시책사업 논의 등 심도 있게 진행했다.

특히, 면의 다양한 복지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 조직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칭을 ‘신평면 행복나눔 협의체’로 결정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업과 연계해 독거노인의 이동발레 봉사 및 저소득 가정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을 먼저 진행할 것을 결의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률, 해수욕장 성범죄 예방강화

고창경찰서(서장 전순홍)가 지난달 30일부터 개장하는 구시포, 동호해수욕장에서의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폭력 범죄 전담반 운영 등 성범죄 근절에 경찰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여름이 되면 하천·계곡과 해수욕장에 피서객이 운집하는데, 이를 틈타 불청객처럼 ‘추행이나 몰래 카메라 촬영 등 성범죄 위험성 또한 증대’되기 마련으로, 정북경찰관이 가시적 순찰로 예방활동 강화는 물론 행사, 여흥 기능 합동으로 ‘성범죄전담팀’을 구성하여 피서지 내 성범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민약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사건조사와 응급치료 등 피해자 보호·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찰, 주변 상인, 패드롤링 등과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통해 성범죄 예방홍보물 배부와 플래카드 설치, 성범죄 추방을 위한 적극적인 신고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군 불법 마약류 퇴치 캠페인

임실군은 6월 마약퇴치주간을 맞아 ‘불법 마약류 퇴치 캠페인’을 실시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섰다.

지난달 30일, 관촌면 터미널 및 시장일원에서 실시한 캠페인은 ‘함께하는 마약 퇴치, 함께하는 건강사회!!’, ‘마약 없는 건강한 임실!!’을 슬로건으로 마약퇴치 포스터 및 홍보용품을 배부하며 마약류 오남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행한 사례 위주로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불법마약류 오·남용은 결국 자신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군민들이 마약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